

사회적 자아중심성 : 타인이해에서 성향주의의 원천

이수원

한양대 교육학과

'일반인 성향주의'는 관찰자들이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할 때 상황에서 비롯된 행동을 성향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귀인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일반인의 성향주의가 타인이해에서 관찰자들이 범하는 사회적 자아중심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을 밝히려 하였다. 사회적 자아중심성은 특정 역할관계에서 얻어진 타인의 인상을 그의 개인적 실체 즉, 그의 실체의 모습이라고 '절대화'해서 지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와 그와의 특정 역할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주어진 역할관계에 맥락화되어 얻어진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사회적 자아중심성은 관찰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역할'로서 동일시 할 때 나타난다. 이때 관찰자들은 '역할'을 곧 '자기'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행동을 자기의 의지의 발로로 지각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역할행동을 자기의 의지의 발로로 지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역할행동도 그의 의지의 발로로 보게 된다. 그리하여 역할에서 비롯된 행동을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는 성향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와 경험적 자료들을 제시하고 이를 기존의 대인지각연구 결과들과 관련시켜 논의하였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의 결과를 그의 성격이나 능력과 같은 성향 탓으로 말미암아 유발된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거짓말을 하면 그가 원래 '거짓말장子'이기 때문이며, 말을 많이 하면 그가 원래 '수다장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현상을 Ross와 Nisbett(1991)은 '일반인의 성향주의'(lay dispositionism)라고 명명하였다. 성향주의는 타인의 행동이 실제로 그가 처한 역할이나 상황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의 성향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그동안 타인이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서 나타났다. 태도주제에서 성향주의를 처음 관찰한 Jones(1990)는 이를 상응편향(correspond-

ence bias)이라고 이름 붙였다. 상응편향은 행동의 결과를 토대로 그에 상응되는 행위자의 성향을 추론하는 것이다. 누가 '사과'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사과'를 좋아한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위자가 처한 상황이나 역할은 간과되기 때문에 '편향'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편 Ross(1977)도 귀인연구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의 일관된 성향주의를 관찰하였다. 그는 이를 기본적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불렀다. 이 오류는 관찰자들이 행동의 원인을 지나치게 행위자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이 오류가 처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관찰자와 행위자간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지각이 다르다는데서 부터 비롯되었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상황으로 귀인시키는 반면에 관찰자는 성향으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Jones와 Nisbett, 1972). 관찰자의 성향주의는 매우 강한 것으로 심지어는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자 자신이 유발시켰을 때에도 일어난다. 이 장면에서 관찰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물으면 그 행동이 관찰자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지 않고 행위자의 성향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Gilbert와 Jones, 1986).

그렇다면 일반인의 성향주의는 왜 나타나는 것인가? Heider(1958)를 비롯한 많은 귀인이론가들은 성향주의를 개인의 지각적 경험의 산물로 보았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관찰자의 주의가 행위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행위자가 특출한 자극이 된다. 행위자가 '전경'이 되고 상황은 '배경'이 된다. 이러한 지각적 특출성(saliency) 때문에 행위자가 행동유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어디에 '주의'하는가가 어디에 '귀인'하는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현재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번째 도전은 성향주의가 학습의 산물이라는 연구결과들이다. 성향주의는 문화에 따라 다르며(Miller, 1984), 개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Block과 Funder, 1986).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성향주의를 지각적 경험의 결과로서 보는 견해로는 설명할 수 없다. 두번째 도전은 행위자의 행동을 문장으로 제시한 연구들로부터 온다. 이런 경우에 행위자의 지각적 특출성은 배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성향주의가 나타나는 것이다(Winter와 Uleman, 1984). 세번째 도전은 지각적 설명에서 행위와 행위자가 하나의 인과적 단위를 이룬다는 가정에 대한 도전이다. 지각적 설명에서는 행위와 행위자가 인과적 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행위가 지각적으로 특출하게 되면 이와 함께 행위자도 특출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Jones(1990)는 행위와 행위자가 인과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일반인의 성향주의'를 지각적 경험의 결과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성향주의에 대한 지각적 설명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원래 관찰자와 행위자간의 귀인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기되었다. 관찰자와 행위자는 '주의의 초점'이 서로 다르다. 관찰자는 '행위자'가 주의의 초점이 되지만, 행위자는 '행동상황'이 주의의 초점이 된다. 따라서 지각적 설명에서는 관찰자와 행위자가 각자 자신의 '주의의 초점'으로 행동의 원인을 귀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관찰자들의 성향귀인 경향을 '일반인의 성향주의'의 원천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의 성향주의는 원래 '관찰자'와 '행위자'간의 견해 차이에서 부터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일반인'과 '전문가' 여기서는 '보통사람'과 '심리학자'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통 사람과 심리학자는 타인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지각이 다르다. 보통 사람들이 개인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는 행동의 원인을 심리학자들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한다. 그리하여 심리학자들은 보통 사람들의 이와 같은 성향주의적 귀인을 타인이해에서 그들이 범하는 오류나 편향의 하나로 간주하여 '일반인의 성향주의'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보통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상식 심리학자'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들은 심리학자들처럼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찾는다(Heider, 1958). 그래야만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원인을 어떻게 추론하는가에 따라서 그 행동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깨를 툭치는 행위'도 그 원인을 어떻게 추론하는가에 따라 '구타'가 될 수도,

‘격려’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타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보통 사람들은 왜 심리학자처럼 정확한 추론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하여 성향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인가? ‘일반인의 성향주의’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왜 ‘전문가’의 지각과 같은 지각에 이를 수 없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과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반인’과 ‘전문가’ 간의 이와같은 차이가 인식되었다. 고전물리학에서는 대상의 운동이 오직 그것의 성질에 의해서 설명되어졌다. ‘금속’은 무거운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물에 가라 앉으며, ‘나무’는 가벼운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물에 뜬다고 생각하였다. 고전물리학에서 보지 못했던 것은 현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규칙성이었다. 물의 질량과 대상의 질량간의 관계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현대 물리학에 와서 ‘대상’과 ‘환경’ 간의 관계가 규명되면서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가 ‘목적론적 설명’에서 ‘인과론적 설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그의 성향에서 찾는 일반인의 성향주의는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에서의 이와 같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사회현상에 대한 목적론적 설명의 산물로서 간주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심리학자들은 행동의 원인을 상황에서 찾는 인과론적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사실 보통사람과 심리학자간의 이와 같은 견해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은 그들간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설명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런지도 모른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인과론적 설명을 시도한 반면에 보통사람들은 목적론적 설명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그들간의 이와 같은 견해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전개해 보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먼저 ‘일반인의 성향주의’에 대해서 그동안 수행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이어서 성향주의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사람과 심리학자간의 견해차이가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발생론적 입장에서의 하나의 설명을 시도해 보았다.

성향주의의 본질

타인이해에서 성향주의 현상은 일찍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1949년에 발표된 Ichheiser의 논문에서는 관찰자들이 타인의 행동을 지나치게 행위자로 말미암아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성향주의가 본격적으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Heider(1958)에 의해서였다. 그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행동과 행위자가 하나의 인과적 단위로 지각되기 때문에 관찰자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에게서 추론한다고 생각하였다.

‘일반인의 성향주의’는 그동안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어져 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Jones(1990)는 이를 ‘상용편향’이라고 불렀다. 그는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동기중의 하나가 행위자의 안정된 성향을 발견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행위자의 성향을 알게되면 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행위자의 성향과 상용하는 것으로 결론내리려는 강한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그가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의 행동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타인의 행동을 그의 성향의 반영으로 보는 이와같은 상용편향이 사람들한테 매우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귀인편향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Ross(1977)는 일반인의 성향주의를 ‘기본적 귀인오류’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기본적 귀인오류를 사회지각에서 나타나는 오류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 오류는 위의 상용편향과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기본적 귀인오류는 행동을 행위자 자신의 성향으로 귀인하는 것이다. 이때 그 행동을 유발한 사회적 규범이나 역할과 같은 '상황의 힘'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타인의 행동을 그의 '의지'나 '성향'의 발로로 보는 것이다. 기본적 귀인오류는 원래 행위자와 관찰자간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지각의 차이에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찰자는 행동의 원인을 성향으로 귀인시키는 반면에 행위자는 상황으로 귀인시킨다는 결과가 그동안 다각적으로 밝혀졌다.

행위자들은 관찰자들보다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상황으로 귀인시킬 뿐만 아니라 예측이 불안정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관찰자들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향주의자들이다. 관찰자와 행위자간의 이와같은 지각의 차이로부터 누가 더 옳은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관찰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위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성격의 다면적 모습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관찰자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는 행위자보다 관찰자가 행위의 원인에 대한 추론에서 보다 많은 오류를 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향주의의 현상

성향주의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경험적 연구는 Jones와 Harris(1967)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원래 상황에 구속되어 유발된 행위와 자유의지에 의해서 유발된 행위에 대해서 원인추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관찰자들은 상황에 구속되어 유발된 행위를 자유의지에 의해서 유발된 행위로 지각한다는 결과가 나타났

다. 대학생들에게 쿠바의 '카스트로'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쓰게 하고나서 그들 중의 한 동료대학생이 쓴 글을 읽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글쓴이의 평소의 태도를 물었을 때 피험자들은 그 글이 실험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 카스트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정하였다. 피험자들은 그 글이 실험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인종분리 정책이나 의료복지 대책 등 다른 태도주제를 가지고 조사한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Jones, 1990).

Nisbett, Caputo, Legant 및 Marecek(1973)은 이와같은 성향주의가 성격에서도 나타남을 밝혔다. 대학생들에게 캠퍼스 관람자들을 안내해 주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데 그들에게는 시간당 일정 금액의 보수가 지급된다고 말하였다. 지급되는 보수액은 여러가지 종류로서 집단별로 달리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급되는 보수의 크기에 따라 지원율이 현저히 달라졌다. 보수가 클수록 지원율도 높아졌다. 그러나 피험자들에게 다른 학생들이 왜 자원봉사자로 지원하게 되었는가를 물었을 때 피험자들 중 대부분은 그들의 봉사정신에다 그 원인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생들의 지원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개인의 봉사정신과 같은 성향이 아니고 경제적 보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개인의 성격에서 성향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검증한 실험은 Newton, Griffin 및 Ross(1988)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직접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격을 가진 행위자를 뽑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험자들에게 자신들이 잘 아는 동료들 중에서 대학 행사의 일환인 구조식품 모금운동에 기부할 '가장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동료와 '가장 적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동료를 지명하게 하였다. 상황의 구속수준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기부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상황

(유도상황)과 그런 유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비유도상황)을 설정하였다. 피험자들에게 두 상황에서 동료 기부자들이 얼마나 기부할 것인가를 물어 본 결과 자기들이 '가장 적게 할 것'이라고 지명한 동료들 중에서는 유도상황에서 17%, 비유도상황에서는 16% 정도가 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자기들이 '가장 많이 할 것'이라고 지명한 동료들 중에서는 유도상황에서 83%, 비유도상황에서는 80% 정도가 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동료 기부자들이 두 상황에서 얼마나 기부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비유도상황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 4%만이 기부에 응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적게 할 것'이라고 지명한 동료들은 0%, '가장 많이 할 것'이라고 지명된 동료들은 8%가 기부를 하였다. 그러나 유도상황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 33%가 기부에 응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적게 할 것'이라고 지명된 동료들은 25%, '가장 많이 할 것'이라고 지명된 동료들은 42%가 기부에 응하였다. 이렇게 볼 때, 행위의 원인으로서는 '상황의 힘'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성향의 힘'을 얼마나 과대평가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동료들의 성격이나 평판이 그들의 행동을 예언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였다. 개인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은 성향보다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났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행동은 대체로 성향보다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생각한다. 실제 상황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움행동을 연구한 Darley와 Batson(1973)의 결과는 도움행동이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성향으로서 피험자들의 종교적 지향 즉 '개인구원'을 지향하는가 또는 '타인구제'를 지향하는가를 측정하였으며 상황으로서는 설교를 하기 위해 급히 교회로 가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상황에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구할 때 얼마나 도움을 베푸는가를 관찰하였다. 급히 교회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피험자들 중에 10%만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도움을 베풀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63%가 도움을 베풀었다. 그러나 피험자들의 종교적 지향으로 지표화한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구원 지향과 타인구제 지향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 실험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본따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실험의 결과는 이타행동이 사람의 성품이 착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Pietromonaco와 Nisbett(1982)은 피험자들에게 위의 실험장면을 그대로 읽어 주고 나서 신학생들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를 추측해 보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은 절대 다수의 신학생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타인구제 지향적인 사람은 자기구원 지향적인 사람보다 더욱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급히 교회로 가야 하는 상황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간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험자들은 이타행동의 원인이 상황보다는 성향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Pietromonaco와 Nisbett(1982)은 사람들의 이 같은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들에게 앞의 Darley와 Batson의 실험에서 나타난 신학생들의 도움행동의 결과를 자세히 알려 주었다. 그러나 피험자들이 그 결과를 알고난 후에도 도움행동을 개인적 성향으로 보는 경향성에서는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다. 다만 상황에 따른 차이가 전보다 좀 커졌을 뿐이었다. 이렇게 볼 때 보통사람들이 타인의 행위의 원인을 그의 개인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려는 경향성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일상대화에서 사용하는 어휘들만 보아도 잘 나타난다. 개인의 성격 특성을 기술하는 어휘들은 매우 풍부하지만 상황의 특성을 기술하는 어휘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Miller(1982)는 사람들이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성격을 기술하는 어휘'와 '상황을 기술하는 어휘'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피험자들에게 평소에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최근에 한 일 중에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각각 기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이유에 대한 설명 중 거의 절반이 개인의 성향(예, 그는 조심성이 없었다.)이었으며, 상황(예, 자전거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은 성향에 비할 때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었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성향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실 Winter와 Uleman(1984)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피험자들에게 일련의 문장을 보여 주었다. 그 문장은 "도서관 직원이 거리에서 어떤 노부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 주었다"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을 기억하게 하였다. 이때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워 기억단서로 도서관을 연상하는 '책'이라는 단어와 개인의 성향을 연상하는 '이타적'이라는 특성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 결과 특성을 제시받은 피험자들이 '단어를 제시받은 피험자보다 회상률이 높게 나왔다. 그래서 피험자들에게 문장을 읽으면서 행위자의 성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했는가를 물었을 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사실상 성향에 대한 관심이 기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실험에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이 기억에 보다 좋은 단서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성향으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성향주의에 관한 대부분의 실험에서 상황의 조작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들 실험에서 성향주의는 역할로 인해서 유발된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성향으로 인

해서 유발된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로서 측정하였다. 앞에서 인용한 Jones와 Harris(1967)의 연구에서도 성향주의의 지표를 실험자에 의해서 부여한 역할수행을 피험자들이 개인적 성향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로서 측정하였다. 성향주의 현상에 관한 대표적인 실험의 하나인 Ross, Amabile 및 Steinmetz(1977)의 실험에서는 역할수행을 개인의 성향으로 귀인하는 현상을 직접 규명하였다. 이 실험에서 제시한 과제는 모의 퀴즈게임이었는데 피험자들을 무선적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질문자, 답변자 및 관찰자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실험자는 질문자에게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만들게 하여 답변자가 정답을 거의 못 맞추도록 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사후 평가에서 관찰자들에게 답변자들의 일반상식능력을 평가하게 한 결과 능력이 평균 대학생 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질문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평균 대학생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관찰자들은 역할에 따라 수행한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에다 귀인시킨 것이다. 사람과 역할을 혼동하는 이와같은 현상은 실제 사회장면에서도 나타났다.

Humphrey(1985)는 조직체에서 상사와 부하가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연구하였다. 피험자들을 무선적으로 관리자와 사무원으로 나누워 이들이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이때 관리자는 업무상 지시와 감독의 책임을 지게하였으며, 사무원은 관리자의 지시에 쫓아 단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두시간 동안의 업무수행이 끝난 후 이들에게 자신과 상대의 업무관련 특성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이들 특성은 지도력, 지능, 일에 대한 의욕, 자기주장 등이었다. 이들 모든 특성에서 관리자들은 자기네들이 사무원들보다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사무원들도 일에 대한 의욕을 제외하고는 모든 특성에서 관리자들이 자기네들보다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직책이 무선적으로 뽐혀졌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직책에 따른 권

한행사도 실험자에 의해서 미리 작성되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평가가 역할에 의해서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성향주의의 기능

일반인의 성향주의는 Ross(1977)를 비롯한 많은 귀인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볼때 '오류' 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 오류는 역기능과 동시에 순기능도 갖고 있다. 성향주의의 순기능은 환경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진화론적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가 보고 듣는 수 많은 행동의 원인들을 일일이 추론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는 인지적 절약가이다. '인지적 절약가'로서 사람들은 타인의 행위의 원인을 가장 간단한 처리과정, 즉 행위자의 성향으로 귀인시킨다. 그럼으로써 복잡한 사회환경에 대처하는 것이다.

성향귀인은 상황귀인 보다 간단하고 단순한 과정이다. Gilbert, Pelham 및 Krull(1988)은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바쁘거나 많은 자원을 요구할 때는 성향귀인을 하는 반면에, 이와 반대일 때는 상황귀인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상황귀인이 성향귀인 보다 그만큼 인지적으로 많은 자원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대한 추수연구에서 Gilbert와 Krull(1988)은 사람들이 자기조절(self-regulation) 즉, 자기행동을 관리해야 할 때는 인지적으로 바쁜 피험자들처럼 타인의 행위를 그의 성향으로 귀인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이 사실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때 즉,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함과 아울러 자기조절도 해야할 때는 타인의 행위의 원인을 성향으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향주의의 또 다른 순기능은 타인의 행동

에 대한 예언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타인의 행동을 성향으로 귀인시키면 앞으로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타인의 행동을 상황으로 귀인시키면 이와같은 예언이 가능하지 않다. Swann(1984)은 보통사람과 심리학자간의 성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심리학자는 성향개념을 어떤 개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 성향과 일치되는 행동을 일관되게 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성향개념을 특정상황에 국한하여 사용한다. 즉, 만일 이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면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따라 그의 성향을 규정한다. 일반인은 특정상황에 제한된 정확성(circumscribed accuracy)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행위의 원인을 추론하는 목적을 이렇게 제한된 예언력에 둘 때 성향귀인은 아주 정확한 귀인이 된다. 행위자는 유사한 상황에 다시 부딪치게 되면 전과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성향주의'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또한 성향주의는 역기능도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들은 규범이나 역할과 같은 상황 때문에 일어난 행동을 개인적 성향에서 일어난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집단이나 범주 안에서 나타나는 고정관념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고정관념은 집단이나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어난 행동을 개인적 성향 때문에 일어난 행동으로 지각할때 유발된다. 즉, 집단에서의 역할 때문에 일어난 행동을 개인에서의 성향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지각할 때 고정관념이 나타난다. Eagly와 Steffen(1984)은 여성에 대한 '수동적'이고 '애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이 그들이 전통적으로 맡았던 역할이 '가사'이기 때문에 형성되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역할을 바꾸어 남성이 가사를 맡게하고 여성이 남성직업을 맡도록 조작하였다. 그결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줄어들었다. 이 실험은 역할에 의해서 수행된 행동

성향에 의한 행동으로 지각함으로써 고정관념이 형성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사실 '흑인'의 많은 행동은 그들이 주어진 사회에서 맡은 역할 즉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수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 성향으로 귀인 함으로써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성향주의는 개인간이나 집단간 갈등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주장'간의 차이를 개인적 성향에서의 차이로 지각하게 함으로써 '개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한다. 여기서 만일 주장간의 차이를 그들이 처한 '역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개인'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역할'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할 수행을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개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된다. 이수원(1993)은 역할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개인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으로 지각함으로써 갈등 파트너 간의 적대감이 고조됨을 밝혔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당면한 갈등을 문제 해결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개인간의 대결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성향주의의 원인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왜 그와같이 중요한 문제에서 성향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명은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Heider(1958)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다. 그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행동이 특출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주변 장면은 행동에 의해서 흡수되어 버린다고 생각했다. 즉, 행위자는 '전경'이 되고, 상황은 '배경'이 된다. 행위자는 움직이고, 말을 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주의를 끄는 반면에 상황은 흐릿하고, 단조롭고, 정태적이기 때문에 주의를 끌지 못한

다. 따라서 관찰자들이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려고 할 때 상황요인은 과소평가하게 되고 행위자 요인은 인과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의 생각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에 '주의'하는가는 우리가 무엇에 '귀인'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의 이같은 생각은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을 자극했다. McArthur와 Post(1977)는 행위자가 밝은 조명 밑에 있거나 움직일 때는 어두운 조명 밑에 있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보다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의 성향으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유사하게 Arkin과 Duval(1975)은 주변 환경이 움직일 때는, 그것이 정지되어 있을 때보다 행동의 원인을 상황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Taylor와 Fiske(1975)도 관찰자가 A와 B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 그런데 A를 B보다 더 잘 볼 수 있을 때, 상호작용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B보다 A에게 더 많이 귀인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각적 특출성이 귀인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지각적 특출성은 특히 관찰자와 행위자간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 가를 설명해 준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상황으로 귀인시키는 반면에 관찰자는 같은 행동을 행위자의 성향으로 귀인시킨다. 그런데 지각적 특출성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을 직접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은 특출한 자극으로서 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위자에게는 차라리 상황이 특출한 자극이 된다. 반면에 관찰자에게는 행위자가 특출한 자극이 된다. 행위자가 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에게 귀인시키는 것이다. Storms(1973)는 행위자와 관찰자가 서로 다른 것에 주의를 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인과적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지각적 특출성 설명은 한마디로 관찰자의 지각적 경험에 입각해서 성향주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성향주의를 관찰자의 지각적 경험의 자동적 결과로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성향적 귀인이 지각적 경험의 자동적 산물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들이 최근에 와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첫번째 도전은 성향주의가 학습의 산물이라는 연구결과들이다. Rholes, Jones 및 Wade (1988)는 인간의 성향을 기술하는 어휘들은 아동 후기에 이르러서야 획득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 시기에 아동들은 타인의 행동을 성향적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들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상황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성향주의는 문화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Miller(1984)는 귀인과정에 대한 비교문화연구에서 기본적 귀인 오류가 서구인들의 인과추론에서는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비서구문화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다는 성인들 사이에서 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화를 통한 학습에서의 차이가 성향귀인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우기 성향주의의 경향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도 얻어졌다(Block과 Funder, 1986). 또한 관찰자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원인추론을 타인에게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귀인 오류 경향이 줄어든다는 결과도 나타났다(Tetlock, 1985). 이와같은 연구 결과들은 성향주의를 지각의 자동적 결과로 보는 설명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지각적 특출성 설명을 위협하는 두번째 도전은 타인의 행동을 문장으로 제시한 연구들이다. 이 경우에 타인의 행동의 지각적 특출성은 배제된다. 그런데 이 때에도 성향주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타인의 행동을 문장으로 제시한 Winter와 Uleman(1984)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행위자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하였다는 정보만 가지고도 성향으로 귀인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피험자들의 반응은 매우 신속하여 거의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연구자들은 성향귀인이 자극의 부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사실 성향주의의 원천에는 지각적 경험 이외에 어떤 추론과정이 개입되어 있을런지 모른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일정한 도식 또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타인의 행동이 자기의 도식이나 기대와 부합할 때 자동적으로 성향으로 귀인하는 것이다. Reeder, Fletcher 및 Furman(1989)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들은 사람들이 상황에 구속되어 표명된 태도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표명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도식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모든 태도의 표명은 그것이 비록 상황에 구속된 것일지라도 표명자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도식 내지는 기대를 사람들은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도의 표명을 표명자의 성향 탓으로 귀인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지각적 특출성 설명에 대한 세번째 도전은 행위와 행위자가 원초적으로 인과적 단위를 형성한다는 생각에 대한 회의이다. Heider(1958)의 지각적 특출성 설명에서의 기본 전제는 행위와 행위자가 하나의 인과적 단위로 묶여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위가 지각적으로 특출하게 되면 행위자도 이와 함께 특출하게 되어 행위자에게 귀인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와 행위자간의 인과적 단위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대로만 항상 행동하지는 않는다. 때에 따라 상황의 압력에 쫓아 행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상황에 구속되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사람들은 행위와 행위자의 인과적 단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할 때 상황정보도 감안하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Jones와 Harris(1967)의 연구에서 전반적으로는 성향주의 현상이 나타났지

만, 상황의 구속이 매우 클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행동의 원인을 상황으로 귀인하는 경향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서 만일 사람들이 항상 행동과 행위자를 하나의 인과적 단위로 지각한다면, 상황정보에 대한 이와같은 영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Jones(1990)는 불충분한 조정(insufficient adjustment)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일단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에게서 찾지만, 상황의 영향에 대해서 이차적인 조정을 다시 거쳐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일차적 원인, 즉 성향에 비해서 이차적 원인, 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향귀인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Quattrone(1982)도 귀인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범주화 단계로서 사람들이 주어진 자극형태가 무엇인가를 묻는 단계이다. 둘째는 특성화 단계로서 성향적 자질이 행위로 귀인되는 단계이다. 셋째는 교정단계로서 상황정보가 앞의 성향귀인을 줄이거나 늘이는 데 이용되는 단계이다. 이 모델에서도 행동의 원인을 먼저 성향에서 찾고, 이어서 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앞의 모델과 일치한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성향귀인이 행동의 지각에서 매우 초기단계에서 일어나며, 거의 자연발생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Gilbert, Pelham 및 Krull(1988)의 인지적으로 바쁘거나 많은 자원을 요구할 때는 성향귀인을 하는 반면에 이와 반대로 인지적으로 바쁘지 않거나 자원을 많이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상황귀인을 한다는 결과는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에서 상황귀인은 성향귀인보다 인지적으로 더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Hamilton(1988)과 같은 학자는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에게로 돌리는 과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귀인과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말하는 귀인과정의 의미는 인과적 추론과

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향귀인은 이러한 추론과정이 없이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 생각은 Kruglanski(1975)가 제안한 사건(occurrence)과 행위(action)의 구분과 부합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성이 전혀 없는 것이며 '행위'는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건'은 내적(성향)이나 외적(상황)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행위'는 항상 내적 요인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의 기본적 관점은 인과론적 설명 즉, 무엇이 그 행위를 유발시켰는가를 설명하는 것과 목적론적 설명 즉, 왜 무슨 목적으로 그 행위를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구별하는 데 있다. 귀인이론들은 그동안 '무엇', 즉 원인(cause)에 대한 물음은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왜' 즉, 이유(reason)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일반인들은 '무엇'을 물으면 흔히 '왜'를 답변함에도 불구하고 귀인이론에서는 목적론적 설명에 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Buss(1978)도 귀인이론에 대한 비평에서 이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인과론적 설명과 목적론적 설명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인과론적 설명은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보편적인 규칙성을 찾는 것이다. 이 규칙성은 현상의 핵심적 본질로서 현상을 발발하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러나 이 규칙성은 현상과는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성이 찾아지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되며 예언이나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대조해서 목적론적 설명은 현상을 예상목적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다. 예상목적은 현상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설명은 미래를 지향하며 예상되는 결과를 지향한다.

과학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인과론적 설명과 목적론적 설명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난다.

고전물리학에서는 대상의 운동이 오직 그것의 속성에서 설명되어졌다. 즉, 대상의 운동이 목적론적으로 설명되어졌다. 돌은 무거운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으며, 나무는 가벼운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물에 뜬다고 생각했다. 고전물리학에서 보지 못했던 것은 현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규칙성이었다. 물의 질량과 대상의 질량간의 관계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Lewin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은 대상의 성질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었다. 현대물리학에 와서야 물리적 벡터(vector)의 존재가 반드시 몇몇 물리적 사실들 간의 관계, 특히 대상과 환경간의 관계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935, p.28)고 쓰고 있다. 고전 물리학이 현대물리학으로 오면서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 목적론에서 인과론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위에서 Hamilton(1988)이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에게로 귀인하는 것, 즉 성향주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귀인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그것이 인과론적 설명이 아니고 목적론적 설명이기 때문이다. 인과론적 설명에서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현상과 현상의 원인이 별도로 존재한다. 현상의 원인이 현상 밖에 있다. 그런데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에게로 돌리는 성향주의에서는 현상과 현상의 원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의 결과에 이미 행동의 원인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성향에 대한 추론은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동의 결과에는 이미 행위자의 성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은 추론은 Kluglanski(1975)의 표현을 빌리면 무엇이 그 행동을 유발 시켰는가, 즉 ‘원인’을 추론한 것이 아니며, 왜 그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즉 ‘이유’를 추론한 것이다. 행동의 원인을 행동의 결과와 상응하는 행위자의 성향으로 돌린다는 것은 결국 왜 그가 그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의도성 또는 예상목적물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의 성향에서

찾는 것은 주어진 행동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관찰자들의 성향주의는 귀인 이론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인과론적 설명의 결과가 아니며 목적론적 설명의 결과인 것이다. 귀인이론에서는 성향주의를 인과론적 설명의 산물로서 보았기 때문에 행동의 두가지 원인, 즉 ‘성향’과 ‘상황’중에서 성향으로 귀인하는 것을 성향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데 목적론적 설명에 입각해서 본다면 성향주의는 인과론에서처럼 성향과 상황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빚어지는 산물이 아니다. 목적론적 설명에서는 행동의 원인으로서는 처음부터 성향만이 있는 것이다. 이때 상황은 완전히 무시된다.

앞에서 인용한 Gilbert, Pelham 및 Krull (1988)의 연구에서, 인지적으로 바쁘거나 자원을 많이 요구할 때는 성향귀인을 하며, 이와 반대일 때는 상황귀인을 한다는 결과는 이것을 잘 보여준다. 이 결과는 행위의 원인의 추론이 성향과 상황의 둘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인지적으로 바쁠 때는 행동의 원인을 성향으로 귀인하는 반면에, 바쁘지 않을 때는 상황귀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향귀인과 상황귀인이 서로 상이한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향귀인은 주어진 행동을 목적론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인 반면에 상황귀인은 인과론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향귀인은 상황귀인보다 더 원초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초적인 과정의 산물로서 ‘일반인의 성향주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목적론의 원천

일반인의 성향주의는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때 ‘일반인’은 ‘전문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전

제로 하는 말이다. 명칭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인은 타인의 행동을 그의 개인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그것을 상황이나 역할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한다. 앞 절에서 우리는 이것이 보통사람과 심리학자 간의 설명방식에서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보통사람들은 목적론적으로 설명하는 반면에 심리학자들은 인과론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심리학자와 보통사람들 간의 이와 같은 차이는 타인이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와 보통사람 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차이가 인지되었다. 과학은 자연현상에 관한 보통사람들의 목적론적 설명을 부정하는 데서 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인 16세기 이전에는 목적론적 설명이 인간이나 생물의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무생물의 운동까지도 목적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을 신의 노여움으로 설명한다던지, 돌이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원인을 돌이 구르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iaget(1928)는 아동의 인과적 사고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얻었다. 그는 아동의 인과지각이 목적론에 사로잡혀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인과론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은 흔히 자연현상을 마술적이거나 초자연적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물활론'(animism)에 사로잡혀 있어 무생물에게도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내적 성향이 내재하여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 무생물에는 감정이나 욕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와 같은 목적론적 설명이 사라지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목적론적 설명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타인이해에서 보통사람들은 왜 목적론적 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을 보통사람들의 '사회적 자아중심성'(social-egocentrism)에서 찾았다.

사회적 자아중심성

타인이해에서 사회적 자아중심성은 특정한 역할관계에 구속되어 얻어진 타인의 모습을 그의 실제의 모습으로 '절대화'(absolution)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와 그와의 특정한 역할관계로 인해서 얻어진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다른사람들과 특정한 역할관계에서 만남을 갖는다. '남편'과 '아내', '환자'와 '의사'는 모두 역할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역할관계의 맥락에서 형성하는 상대에 대한 모습은 주어진 역할관계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뀐다. '아들'이 본 '엄마'의 모습, '남편'이 본 '아내'의 모습, '어머니'가 본 '딸'의 모습, 그리고 '시아머니'가 본 '며느리'의 모습은 같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역할에는 그 역할에 고유한 역할기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할기대(role expectation)는 역할 점유자와 역할 파트너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기대이다.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사'의 역할기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역할기대에는 주어진 역할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를 어길 때는 사회로부터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러한 역할기대는 역할 점유자와 역할 파트너 간의 '상호작용 목표'를 결정한다. 상호작용 목표(interaction goal)는 주어진 역할관계에서 개인들이 추구하는 목표, 요구 또는 기대를 말한다. 상호작용 목표를 처음으로 개념화한 Jones와 Thibaut(1958)은 사람들은 상호작용에서 보통 세 가지 목표를 갖는다고 보았다. 첫째, '인과발생적' 목표로서 역할 파트너가 수행하는 행동의 발생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과 둘째, '가치 유지적' 목표로서 자신이 선호 또는 배척하는 가치를 역할 파트너가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과 셋째, '상황 적응적' 목표로서 역할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행동이 사회적 규범이나 관행에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려

는 목표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상호작용에 임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타인에 대한 지각이 이들 목표의 함수로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각심리학자 Gibson(1979)은 환경 속의 모든 자극대상은 '소여특성'(affordance)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소여특성은 자극대상이 지각자에게 제공하는 '유인가'로서 지각자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된다. '천둥'은 '나를 두려워하라'라는 소여특성을 갖고 있으며, '물'은 '나를 마셔라'라는 소여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자극정보가 제공하는 수많은 소여특성 중에서 지각자가 어떤 것을 지각하는가는 그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하는 지각적 조율(attunement)에 달려 있다. '지각적 조율'은 지각자의 경험, 목표, 및 기대의 함수로서 변화하는 것이다. 즉, 지각자가 개인적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 및 그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특정 자극정보에 대해 선택적으로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 지각적 조율이다. 따라서 개인의 지각적 조율에 따라 타인의 특성중에 어떤 특성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달라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지각 내용도 바뀌게 된다.

역할관계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상호작용 목표가 달라지게 되면 지각적 조율도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즉, 역할 파트너가 제공하는 소여특성 중에서 어떤 것에 주의하는 가는 상호작용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최근에 Hilton과 Darley(1991)는 상호작용 목표에 따라 타인에 대한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조사한 실험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보면 상호작용 목표는 타인에 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처리하며,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들에서 나타났다. 특정 역할관계에서의 상호작용 목표는 타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역할관계가 변화되어 상호작용 목표가 달라지면 역할 파트너에 대한 지각내용과 그에 따른 인상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자아중심성'은 특정 역할관계에서 얻어진 역할 파트너의 모습을 그의 실제의 모습, 즉 그의 개인적 실체라고 '절대화'해서 지각하는 것이다. '사장'이 자기가 보는 '사원'의 모습을 사원의 실제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역할관계가 달라지면 '상호작용 목표'도 달라지며, 따라서 사원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지금 보고있는 역할 파트너의 모습은 모든 다른 역할관계에서도 그 모습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지금 보고있는 역할 파트너의 모습이 자기와 그와의 특정 역할관계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주어진 역할관계에 맥락화(contextualization)되어 얻어진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사회적 자아중심성 상태에서는 인식의 '절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이수원과 이해경, 1993).

세상을 지각할 때 인식의 주체로서의 '자기'는 항상 '인식의 틀'이 된다. 자기가 '도구'가 되어 세상이 지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식의 틀로서의 '자기'는 직접 지각되지 않는다. 인식의 틀인 '내'가 '나'를 지각할 수는 없다. 마치 '눈'이 자기 눈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각의 대상은 항상 자기 밖의 '세상'이 된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지각이 '절대화'된다. 세상을 지각할 때 자기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각하는 세상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실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타인이해에서 인식의 절대화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번째 형태는 특정 역할관계에서 얻어진 타인의 모습을 다른 역할관계에까지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관점에서 본 '며느리'의 모습이 '친정어머니'의 관점이나 '아들'의 관점에서 얻어진 모습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어떤 특정한 역할관계에서 얻어진 타인의 모습을 역할관계의

맥락을 초월해서 그의 실체의 본 모습이라고 '절대화'하여 지각하는 것이다. 두번째 형태는 '역할'을 '개인'의 실체로 지각하는 것이다. 역할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타인의 모습은 그의 역할수행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각에서 역할이 '맥락화'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역할에서 비롯된 행동을 개인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타인의 역할에 대한 지각에서 자기의 역할이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있는 그의 모습을 그의 개인적 모습으로 '절대화'하여 지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번째 형태인 '역할'을 '개인'의 실체로 지각하는 것은 타인이해에서 나타나는 목적론적 설명의 원인이 된다. 타인이해에서 목적론적 설명은 원래 사회적 구성물인 '역할 행동'을 개인적 구성물인 '의지'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목적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의 역할행동을 그의 '의지'의 발로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역할'을 '개인'으로 잘못 지각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그것들 중의 하나는 사람들은 어느 특정 순간에 자기의 '역할'을 바로 '자기'와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순간에는 타인의 역할도 그와 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에 역할을 개인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Turner(1985)는 개인의 자아정체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는 개인적 정체(individual identity)로서 개인의 성격, 지식 또는 신체적 특징과 같은 그 개인에게 고유한 특성들로 부터 얻어지는 자아정체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정체(social identity)로서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얻어지는 자아정체이다. 전자는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유별나다"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자아정체인 반면에, 후자는 "나는 아버지이다", "나는 교수이다"와 같이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자아정체이다. 그런

데 그는 개인의 자아정체가 상황에 따라 개인적 정체에서 사회적 정체로 수시로 바뀐다고 보았다. 전쟁중에 적군과 만났을 때는 '적군'과 구별되는 '아군'으로서의 사회적 정체로 자기를 동일시하지만, 길거리에서 친한 친구와 만났을 때는 '너'와 구별되는 '나'로서의 개인적 정체로 자기를 동일시한다.

여기서 개인의 자아정체가 개인적 정체와 사회적 정체 중 어느 것으로 동일시되는가에 따라 그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그의 이론의 요체이다. 개인의 자아정체가 사회적 정체로 동일시될 때에는 개인적 정체로 동일시될 때 나타나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행동은 사라지고 몰개인적(deindividuation)이고 탈인격적(depersionalization)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그가 속한 사회집단의 역할기대이다.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기대가 곧 개인의 기대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순간에 '역할'이 곧 '개인'이 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개인의 행동은 역할에 의해서 지배된다. 개인은 그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대행자(agent)'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기대에 쫓아 연기하는 '꼭두각시'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기를 '역할의 불모'라고 보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의지'에 쫓아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원인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기의 자아정체를 사회적 정체로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할이 곧 자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역할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즉, '역할의 불모'가 되어 행동하면서도 '자기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정체가 사회적 정체 즉, 역할로 동일시되어 있을 때에만 그러한 것이다. 자기의 정체가 개인적 정체로 동일시될 때에는 '역할에서의 기대'가 '자기의 기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역할수행이 자신에게 '역할의 불모'라는 자각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정체는 역할로 동일시될 때 역할기대를 수행하는 행동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하는 행동으로 지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은 타인에 대한 지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타인의 역할행동을 그가 맡은 역할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지 않고, 그의 개인적 성향이나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할관계에서 개인들의 정체는 사회적 정체로 동일시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각자가 자신의 정체를 사회적 정체로 동일시할 때 '역할'이 곧 '자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행동을 자기의 의지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타인의 역할행동도 그의 의지나 성향의 발로로 보게 된다. 자기의 역할행동을 자기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의 역할행동도 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투사(projection)이다. 그런데 '인식의 절대화' 때문에 그렇게 지각한 타인의 모습을 자신의 자아정체의 투사의 산물로서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의 실체로서, 즉 그의 실재 모습으로 '절대화'하여 지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각된 타인의 모습이 자신의 자아정체의 투사의 산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정체가 사회적 정체에서 개인적 정체로 바뀌면 타인의 모습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모른다. 앞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타인이해에서의 '인식의 절대화'는 특정한 역할로 동일시된 타인의 모습을 그의 '실재의 모습'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그 모습이 '인식의 틀'로서의 자기의 정체가 특정한 사회적 정체로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후배'로서 동일시된 역할 파트너의 모습을 그의 '실재의 모습'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자신의 자아정체가 '선배'로서 동일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자기의 정체가 '남성'으로 바뀌면 그의 모습도 '여성'으로 바뀐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가 지금 보고있는 역할 파트너의 모습이 그와 자기의 특정한 역할관계로부터 얻어진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타인이해에서의 '인식의 절대화'이다. 그리하여 이 때는 상대방의 '역할'을 그의 '실재의 모습'으로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역할행동도 그의 의지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일반인의 성향주의'의 뿌리인 것이다.

그런데 역할은 사실 개인의 '본 모습'이 아니다. 역할은 오히려 개인의 본 모습을 가리는 탈(persona)이다. 역할수행은 역할이라는 '탈'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이다. 역할은 원래 연극에서 나온 말이다. 연극에서 연기자들은 일정한 배역을 맡으며 그것을 무대에서 연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도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그들이 맡는 배역을 말한다. 여기서 배역은 연극에서의 역할과 같이 그에게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그가 떠난다 하더라도 배역 그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다시 채워지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앞서에서도 본 것처럼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역할수행을 '연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역할수행을 개인의 '의지'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한다. 그리하여 타인이해에서 목적론적 설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Flavell, Green 및 Flavell(1986)의 표현을 빌리면 외양(appearance)과 실재(reality)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는 4살 정도 아동들에게 곰처럼 위장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여주고 저것이 곰처럼 보이는지 사람처럼 보이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것이 실제로 곰인지 사람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곰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맞힌 아동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많은 아동들은 저것이 실제로 곰이라고 지각하였다. 이들은 '외양'을 '실재'로서 착각하였던 것이다.

사실 역할은 여기서 말하는 '옷'과 같은 것

이다. '왕자와 거지아이'라는 동화에서 이 사실이 잘 드러난다. 왕자와 거지아이가 어느 날 '옷'을 서로 바꾸어 입음으로써 그들의 운명까지도 바뀌게 된다. 왕자 옷을 입은 거지가 왕자로 둔갑하고,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실제 거지로 취급된다. 사람들은 그들의 '옷'인 외양만 보고 그것을 그들의 본 모습인 실재로 판단했던 것이다. 여기서 '옷'은 역할로 비유된다. '옷'으로 비유된 왕자 또는 거지의 역할은 외양이다. 그들의 실재는 '옷'을 벗고 난 후의 모습이다. 그것이 그들의 본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양'을 '실재'인양 착각하였다. 그리하여 왕자와 거지아이의 정체를 혼동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역할'에서 비롯된 행동을 '개인'으로 혼동하는 목적론적 설명은 '외양'을 '실재'로서 잘못 지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역할' 즉 '외양'이라는 탈을 쓰고 '사회'라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그의 '개인적 의지' 즉, '실재'의 발로로서 지각함으로써 비쳐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각자가 자신의 정체를 사회적 정체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역할행동을 자기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의 역할행동도 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론적 설명은 지각자의 '사회적 자아중심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경험적 연구들

지금까지 '일반인의 성향주의'가 지각자의 사회적 자아중심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일반인의 성향주의에 대한 사회적 자아중심성 설명의 타당성은 두가지 방향에서 경험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자아정체가 역할로 동일시 될 때에는 역할 파트너의 자아정체도 역할로 동일시하는가라는 문제이

다. 다음으로 이렇게 역할 파트너의 자아정체를 역할로 동일시하게 되면 역할행동의 원인을 그의 성향 탓으로 귀인시키는가라는 문제이다. 여기서 첫번째 문제는 필자와 동료들이 최근에 실시한 실험들에서 검토되었다. 원상희와 이수원(1994)은 남녀 대학생에게 젊은 여성의 인물사진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인상을 평정시켰다. 그리고 나서 데이트 장면에서 그들이 취하는 행동들을 제시하고 이들 행동의 원인을 추론시켰다.

피험자들은 남자로 구성된 두 집단과 여자로 구성된 한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남자로 구성된 한 집단에게는 이 조사의 목적이 데이트 파트너를 짝지우는 것으로서 여러분은 앞으로 사진에서 제시되는 여성 중의 한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지시하였다(역할관계 부여집단). 다른 두 집단에게는 이런 지시를 하지 않고 이 조사의 목적을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지시하였다(역할관계 미부여집단). 결과를 보면 데이트 장면에서 여성들이 취하는 여러가지 행동, 예컨대 '남자의 애프터 신청을 거절한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난다',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내게 한다' 등과 같은 행동에 대한 원인추론에서 역할관계 부여집단은 이들 행동의 원인을 '여성 일반'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에 역할관계 미부여집단은 '특정 여성'의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에서는 행동의 원인을 '여성일반'의 범주나 역할의 특성에서 찾고 있는 반면에 후자 집단에서는 '특정여성'의 개인적 특성에서 찾고 있다. 이 결과는 역할관계 부여집단에서는 제시된 여성들을 '성범주'로서 동일시하는 반면에 역할관계 미부여 집단에서는 그들을 '개인'으로서 동일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Brewer(1988)는 그의 대인지각의 이중과정 모형에서 대상인물에 대한 표상이 범주(category)에 기초한 표상과 개인(person)에 기초한 표상의 두가지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

했다. 그는 이를 구별해 주는 예로서, 'X는 간호원이다'라는 정보가 있을 때, 'X를 간호원의 일원'으로서만 지각하면 그를 '범주'로서 표상한 것이며, '간호원을 X의 특성중의 하나'로서 지각하면 그를 '개인'으로서 표상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위의 실험에서 역할관계 부여집단에서는 제시된 여성들을 '범주'로서 표상하고 있는 반면에 역할관계 미부여 집단에서는 그들을 '개인'으로서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피험자들이 대상인물과 특정한 역할관계를 가질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를 '개인', 즉 개인적·정체로서 보다는 '범주', 즉 사회적 정체로서 표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의 자아정체를 직접 조작하지는 않았다. 대상인물과의 역할관계를 통해서 이를 조작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자아정체가 역할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하여 김태준과 이수원(1994)은 개인의 자아정체를 직접 조작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인의 자아정체의 조작은 Gaertner, Mann, Murrell 및 Dovidio(1989)의 조작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에서는 먼저 피험자들을 남녀 각각 4명씩 성별로 패를 갈라 성 역할에 대한 토론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자아정체가 성범주에 따른 사회적 정체로 동일시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제시한 과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해상조난시 생존방법을 탐색하는 과제를 제시하여 피험자들을 범주화, 재범주화 및 탈범주화조건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범주화(categorization) 조건은 앞에서와 같이 성별로 패를 갈라 위의 과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이미 형성한 성범주에 따른 내외집단 구분을 유지시킨 집단이다. 재범주화(recategorization) 조건은 남녀집단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상위목표에 의해서 성범주에 따른 내외집단구분을 해체시킨 집단이다. 탈범주화(decategorization) 조건은 위의 과제를 각자 개별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개인화에 의해서 성범주에 따른 내외집단구분을 제거시킨 집단이다.

여기서 첫번째 범주화집단은 개인의 자아정체가 사회적 정체로 동일시되도록 만든 집단이며, 나머지 두 집단 탈범주화와 재범주화 집단은 개인적 정체로 동일시되도록 만든 집단들이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먼저 이들 세 집단에서 성범주에 따른 집단간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다르게 나타났다. 범주화조건은 다른 두 조건에 비하여 내외집단간 차별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타인들의 행동에 대한 원인추론에서도 범주화 조건에서는 성범주의 특성 즉, 남성(또는 여성) 일반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에 재범주화와 탈범주화 조건에서는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였다. 범주화조건에서는 타인들을 성범주의 일원으로 동일시하는 반면에 다른 두 조건에서는 개인으로서 동일시하여, 앞에서 인용한 실험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두번째 문제인 타인을 역할로 동일시하면 그의 역할행동을 그의 개인적 성향으로 귀인시키는가에 대한 예언은 그동안 사회적 정체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다루어 졌다. Oakes, Turner, Haslam(1991)은 대학에서 '예술'과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집단토론을 통해 전공범주에서의 그들의 사회적 정체감을 고양시켰다. 그 결과 이를 고양시키지 않은 피험자보다 상대 전공자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시켰을 때 개인적 성향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 실험에서는 귀인의 측정을 두 번 하였는데, 한가지는 행동의 원인이 '개인의 특성' 때문인가 또는 '제시된 자극' 때문인가의 '개인-자극' 차원에서 이루어 졌고, 다른 한가지는 행동의 원인이 '그의 성격' 때문인지 또는 '그의 전공' 때문인지의 '성격-전공'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그 결과 개인-자극차원에서는 '사회적 정체감'을 고양시킨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행동의 원인을 더 개인의 특성으로 귀인하였다. 그러나 성격-전공 차원에서는 사회적 정체가 고양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전공 쪽으로 귀인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 사회적 정체감이 고양되면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한 이 결과는 피험자들이 개인의 전공범주를 그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김태준과 이수원(1992)도 이들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최근에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임의적으로 사원선발제도에 시험제 대변자, 추천제 대변자, 및 중재자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들 삼자가 모여 사원선발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다. 이 때 각자는 자신의 태도와는 관계없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대변하도록 하였다. 토론은 상호 서면을 주고 받음으로써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두 대변자 집단에서는 시험제와 추천제에 따른 내외집단의 범주화가 일어났다. 즉, 외집단원을 그의 역할로서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에 중재자 집단에서는 이와같은 범주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피험자들에게 토론과정에서 외집단원이 제시한 제안에 대해서 원인추론을 시켰을 때, 두 대변자 집단에서는 그 제안이 그의 평소의 개인적 신념이나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각하는 반면에 중재자 집단에서는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집단원을 '역할'로서 동일시하게 되면 그의 역할행동을 개인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게 되며, 그를 '개인'으로서 동일시하게 되면 역할행동을 그가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앞의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맺 는 말

일반인의 성향주의는 타인의 행동이 실제로 그가 처한 역할이나 상황때문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의 성향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를 다루었다. 성향주의의 뿌리는 '역할'을 '개인'으로 혼동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Brewer(1988)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타인에 대한 표상이 '범주에 기초한 표상'과 '개인에 기초한 표상'의 두가지가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 범주에 의한 표상은 '개인'을 '범주의 일원'으로서만 표상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범주에 기초한 표상은 '개인'을 '역할'로서 동일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범주'나 '역할'은 '개인'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의 산물로서 사회적 구성물이다. 일반인의 성향주의는 그것을 '개인'으로 잘못 지각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성향주의는 '범주'나 '역할'에서 비롯된 행동을 '개인'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향주의는 원천적으로 볼 때 '역할'을 '개인'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역할 행동'을 '개인 행동'으로 지각하게 되어 빚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범주'나 '역할'을 '개인'으로 동일시하는가? 위에서 인용한 Brewer는 타인을 범주적으로 표상하는 것은 타인 이해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대상인물에 대해서 '자아관여(ego involvement)'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인지적으로 정교화시킬 필요가 없을 때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대상인물에 대한 자아관여의 수준이 '범주적 표상' 또는 '개인적 표상'의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이같은 생각은 언제 사람들이 범주적 표상을 하게 되는가를 밝힌 것이며, 어떻게 범주적 표상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밝힌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각자의 '사회적 자아중심성'에서 찾았다. 사회적 자아 중심성은 특정 역할관계에서 얻어진 타인의 모습을 그의 '실제'의 모습 즉, '개인적 실체'로서 '절대화'해서 지각하는 현상이다. 사회적 자아중심성 상태에서는 그것이 자기와 그와의 특정한 역할관계에 '맥락화'되어 있는 것

임을 모른다. 따라서 역할 관계가 바뀌면 그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타인의 모습은 모든 다른 역할 관계에서도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지각자의 '인식의 절대화'와 관련이 있다.

세상을 지각할 때 인식의 주체로서의 '자기'는 항상 '인식의 틀'이 된다. 자기가 '도구'가 되어 세상이 지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식의 틀로서의 '자기'는 직접 지각되지 않는다. 인식의 틀인 '자기'가 '자기'를 지각할 수는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각의 대상은 항상 자기 밖의 세상이 된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지각이 '절대화'된다. 세상을 지각할 때 '자기'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각한 세상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정 역할 관계에서 만남을 갖는 개인들은 자기들의 자아 정체를 사회적 정체 즉, 역할로서 동일시하게 된다. 그 순간에는 '역할'이 곧 '자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역할 행동도 자기의 의지나 성향의 발로로 보게 된다.

그런데 타인지각 과정에서는 앞에서 인용한 '인식의 절대화' 때문에 '인식의 틀'로서의 '자기'는 자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가 지각한 타인의 모습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실재'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타인의 '역할'을 곧 그의 '실체'로 보는 자신의 지각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의 자아정체가 '역할'로 동일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자아 정체도 그의 '역할'로서 동일시하게 된 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역할'을 '개인'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역할 행동'을 '개인 행동'으로 지각하는 '일반인의 성향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같은 일반인의 성향주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앞에서

일반인과 전문가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았다.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그의 성향으로 귀인하여 목적론적으로 설명하는 반면에, 심리학자들은 이를 상황으로 귀인하여 인과론적으로 설명한다고 보았다. 목적론적 설명은 인과론적 설명보다 원초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Gilbert, Pelham, 및 Krull(1988)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바쁘거나 인지 부하량이 많이 요구될 때는 성향귀인이 증가하며, 그와 반대로 바쁘지 않거나 인지 부하량을 많이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상황귀인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향귀인이 상황귀인에 비하여 보다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행동의 원인추론의 과정이 기존의 귀인 이론들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성향'과 '상황'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먼저 성향귀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상황귀인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임을 보여준다. 먼저 목적론적 설명이 시도되고, 그 후에 인과론적 설명이 후속되는 것이다. 목적론적 설명에서는 상황은 완전히 무시된다. 따라서 성향귀인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행동의 원인을 목적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상황귀인이 이루어지는 후기단계에 가서야 인과론적 설명이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심리학자들은 적어도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목적론적 설명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가지 가능성은 지각자가 자신의 자아정체를 '사회적 정체'에서 '개인적 정체'로 바꾸는 것이다. 타인의 '역할행동'을 그의 '개인행동'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지각자의 자아정체가 사회적 정체 즉, 역할로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자의 자아 정체가 개인적 정체로 동일시되면 타인의 역할행동도 그의 개인행동으로 지각하

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특정한 역할관계의 맥락에서 개인의 자아정체를 사회적 정체에서 개인적 정체로 바꾸는 것은 Brewer(1988)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아 관여'의 수준만 달리함으로써 그렇게 간단히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아 관여의 수준이 타인을 범주적으로 표상하는가 또는 개인적으로 표상하는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만일 그렇다면 범주적 표상의 대표적인 사례인 '고정관념'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정한 역할관계의 맥락에서 사회적 정체로 동일시된 역할점유자의 자아정체를 개인적 정체로 바꾸는 것은 오랜 발달의 결과인 것이다. 개인의 자아정체가 사회적 정체에서 개인적 정체로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탈중심화(decentering)와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가 일어나야 한다. '탈중심화'는 역할점유자가 역할파트너를 자기들의 역할관계에서만 보지 않는 것이다. 역할파트너를 지각할 때 다른 사람과의 또 다른 역할관계에서의 그의 모습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와의 역할관계에서 바라본 역할 파트너의 모습이 그의 '절대적'인 모습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탈맥락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제까지 역할파트너의 실제 모습이라고 절대화해서 받아들였던 그의 모습이 사실은 자기와의 특정 역할관계에 '맥락화'되어 얻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특정 역할관계의 맥락을 초월하여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역할'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그의 실제 모습 즉, '개인적 정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타인의 모습 즉, 그의 개인적 정체는 앞에서 Brewer가 제시한 '개인에 기초한 표상'과 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타인을 '범주의 한 구성원'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범주를 '개인의 특성 중에 하나'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할'이 이렇게 '개인'으로부터 탈맥락화하게 되면 '역할'이 '개인'과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역할'

은 이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하나의 '상황'으로서 인식된다. '역할'이 '개인'으로부터 독립되면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역할'이 '상황'으로서 지각되지 않고 '개인'의 일부로서 지각되었던 것은 '역할'을 '개인'으로 동일시하는 지각자의 사회적 자아중심성 때문이었다. 지각자가 탈중심화와 탈맥락화를 거쳐 사회적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역할'을 '개인'과는 분리시켜 개인 밖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역할'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 밖에 존재하는 외적상황'으로서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개인 밖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심리학자들의 인과론적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태준·이수원(1992).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지각에서 입장개입의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6권 2호, 29-42.
- 김태준·이수원(1994). 사회적 범주지각에서 개인적 특성지각으로: 내외집단 성원의 재범주화 및 탈범주화 효과. 미발표논문, 한양대학교.
- 이수원(1993). 사회적 갈등의 인지적 기제: 사회적 자아중심성.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7권 2호, 1-23.
- 이수원·이혜경(1991). 역할과 개인의 분리: 역할수용의 한 기제. *대학생활연구,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9집, 81-109.
- 원상희·이수원(1994). 역할관계에서 상호작용 목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효과. 미발표논문, 한양대학교.
- Arkin, R., & Duval, S.(1975). Focus of attention and causal attributions of actors and observ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427-438.

- Block, J., & Funder, D.C.(1986). Social roles and social 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ribution and err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00-1297.
- Brewer, M.(1988). A dual process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In T.K. Srull and R. S. Wyer(Ed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Vol.1, pp.1-36). Hillsdale, N.J. : Erlbaum.
- Buss, A.R.(1978). Causes and reasons in attribution theory: A conceptual critiq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311-1321.
- Darley, J.M., & Batson, C.D.(1973). From Jerusalem to Jericho: A study of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variables in help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100-109.
- Eagly, A.H., & Steffen, V.J.(1984). Gender stereotypes stem from the disruption of men and women into social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735-754.
- Flavell, J.H., Green, F.L., & Flavell, E.R.(1986). Development of the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 Serial No.212.
- Gaertner, S.C., Mann, J., Murrell, A., & Dovidio, J.F.(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 Gibson, J.J.(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 Gilbert, D.T., & Jones, E.E.(1986). Perceiver-induced constraints: Interpretation of self-generated re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69-280.
- Gilbert, D.T., & Krull, D.S.(1988). Seeing less and knowing more: The benefits of perceptual ignor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93-202.
- Gilbert, D.T., & Pelham, B.W., & Krull, D.S.(1988). On cognitive busyness: When person perceivers meet person percei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33-740.
- Hamilton, D.L.(1988). Causal attribution viewed from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In D. Bar-Tal and A.W. Kraglanski(Eds.), *The Social Psychology of knowledge*(pp. 359-38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 New York : Wiley.
- Hilton, T.L., & Darley, J.M.(1991). The effects of interaction goals on person perception In M.P. Zanna(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4). New York: Academic Press.
- Humphrey, R.(1985). How work roles influence perception: Structural cognitive process and organizational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242-252.
- Ichheiser, G.(1949). Misunderstanding human rel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5, 2, Part 2.
- Jones, E.E.(1990). *Interpersonal perception*. New York: Freeman.
- Jones, E.E., & Harris, V.A.(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 1-24.
- Jones, E.E., Nisbett, R.E.(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Divergent perception of causes of behavior, In E.E. Jones, D. Kanouse, H.H. Kelley, et al., *Attribution:*

-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pp. 79-94).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Jones, E.E., & Thibaut, J.W.(1958). Interaction goals as bases of inference in interpersonal perception. In R. Tagiuri and L. Petrullo(Eds.), *Person percep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pp.151-178).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ruglanski, A.N.(1975). The endogenous-exogenous partition in attribution theory. *Psychological Review*, 82, 387-406.
- Lewin, K.(1935).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McGraw-Hill.
- McArthur, L.Z., & Post, D.(1977). Figural emphasis and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733-742.
- Newton, R.E. Caputo, C., Legant, p., & Maracek, J.(1973). Behavior as seen by the actor and as the observ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154-164.
- Miller, A. G. (1982). *In the eye of beholder : Contemporary issues in Sterotyping*. New York : Praeger.
- Miller, J.G.(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Newton, E., Griffin, D.W., & Ross, L.(1988). Actual versus estimated impact of person and situation in determining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 Oakes, P.J., Turner, J.C., & Haslam. A.(1991). Perceiving people as group members: The role of fit in the salience of social categoriz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125-144.
- Pietromonaco, P., & Nisbett, R. E.(1982). Swimming upstream against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Subjects' weak generalization from the Darley and Batson stud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0, 1-14.
- Piaget, J. (1928). *Judgement and reasoning in the child*.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Quattrone, G.A.(1982). Behavioral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bias, *Social cognition*, 1, 358-378.
- Reeder, G.D., Fletcher, G.J.O., & Furman, K.(1989). The role of observers' expectations in attitude attribu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8-188.
- Rholes. W.S., Jones, H., & Wade, C.(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personal dispositions and its relationship to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45, 1-17.
- Ross, L.(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Distortions in attribution proces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10, pp.174-221), New York: Academic Press.
- Ross, L., Amabile, T., & Steinmetz, J.L.(1977). Social roles, social control, and biases in social perception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484-494.
- Ross, L., & Nisbett, R.E.(199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Swann, W.B., Jr.(1984). Quest for accuracy in person perception: A matter of pragmatics. *Psychological Review*, 91, 457-477.

- Storms, M.D.(1973). Videotape and the attribution process: Reversing actor's and observers' point of 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165-175
- Taylor, S.E., & Fiske, S.T.(1975). Point of view and perceptions of caus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439-445.
- Tetlock, P.E.(1985). Accountability : A social check on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8, 227-236.
- Turner, J.C.(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 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J. Lawlen(Ed.). *Advances in group process: Theory and Research*, Vol.2, Greenwich, JAI Press.
- Winter, L., & Uleman, J.S.(1984). When are social judgement made? Evidence for the -spontaneousness of trait in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Psychology*, 47, 237-252.

Social-egocentrism : The source of lay dispositionism in person-perception.

Soo-Won Lee

Hanyang University

The lay dispositionism is a tendency which attributes others' behavior not to the situation but to their personal disposition.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one's social-egocentrism is a source of the lay dispositionism. The social-egocentrism is an absolute recognition of others' impression in a certain role relationship as their real personality. People do not realize that one's impression of others are socially constructed in the role relationships they are involved. In this sense, one's impression is contextualized in the given role relationship. This social-egocentrism prevails when a person identifies his or her self identity with the social roles he or she performs. In this context, the person in question perceives his or her own role behavior and that of others as an expression of personal will. As a result, a lay dispositionism which attributes the cause of one's role-based behavior to his or her personal disposition emerges. In this article, I present relevant empirical data supporting this idea, and discuss its implication with regard to the existing theories of person-perception.